

2021 주니어 리더십 캠프 계획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

2021. 3. 26.

국민일보 

1. 추진 배경

- 1) 학생수(초1-고3) 감소 대비 학업중단 학생 수 증가로 지원 방안 필요
- 2)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일정 파행, 학교 부적응 위기 학생들 방치
- 3) 학업 중단 학생 포함 위기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줄 치유 프로그램 마련

2. 주요 현황

<p>학령기 인구(7~18세)</p> <p>학업중단 학생 수</p> <p>2016년 2017년 2018년</p>	<p>2013년 2019년</p>
<p>학교 밖 청소년 관련 추이 (단위: 명)</p>	<p>학교 밖 청소년/청소년 인구 비율(단위: %)</p>
<p>2016년 2017 2018 2019</p>	<p>초등학교 (11,4)</p> <p>중학교 (38,1)</p> <p>고등학교 (50,0)</p> <p>저학년 고학년 진학 안함</p> <p>1학년 2학년 3학년</p> <p>*0.5%는 무응답</p>
<p>학업중단 초·중·고생 현황(단위: 명)</p> <p>※ ()는 부적응 관련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p>	<p>학교를 그만둔 시점 (단위: %)</p>

※ 학령기 인구 대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통계(2019), 통계청·국가교육통계센터

3. 운영 방식

- 1) 코로나 19 종식 전
 - ZOOM 등 활용 비대면 언택트 프로그램 운영(온라인)
- 2) 방역위기 종료 후
 - 시화호환경문화센터를 활용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전환 혹은 병행할 예정

4. 운영 내용(온라인캠프)

- 1) 캠프 명 : 주니어 리더십 캠프(청소년 치유 프로그램)
- 2) 캠프 기간 : 2021년 2분기(4~6월) 3회(3팀) 개최
 - 1회 : 2021년 4월 3주 ~ 5월 3주(5주간)
 - 2회 : 2021년 4월 4주 ~ 5월 4주(5주간)
 - 3회 : 2021년 5월 1주 ~ 6월 1주(5주간)
 - ※ 참가자 일정에 따라 월 또는 목요일에 시작
 - ※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일정은 협의 진행
- 3) 참가 인원 : 1회(1팀) 10명 기준
- 4) 캠프 시간 : 1회(1팀) 총 26시간 이상(개인 및 집단캠프), 주 1회 또는 2회 진행
 - ※ 팀별 개인일정 조율 후 최종 일정 확정
 - ※ 프로그램 세부일정 참조

5. 참가 대상 및 모집

- 1) 참가 대상
 - ① 시화호 인근 지역 포함 경기 지역 초중고생 중 학업 부적응 위기 학생
(자퇴 신청 숙려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 우선 배려)
 - ② 리더십 훈련, 진로 적성 탐색 차원에서 캠프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학생
- 2) 모집 방식
 - ① 시화호 인근 3개 교육지원청(안산, 시흥, 화성오산) 및 경기도교육청 추천
 - ② 관내 일선 학교장과 교사 추천
 - ③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다문화단체 등의 추천
 - ④ 병원, 시민단체, 언론 등 기타 기관의 추천
 - ⑤ 추천을 거치지 않고 캠프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면접 후 결정

6. 강사진

- 1) 대표강사 : 평택대학교 차명호 교수(상담대학원장)
- 2) 일반강사 : 남정아 로저스심리상담센터장(상담학박사) 등 21명
 - ※ 별첨1. 강사진 명단 참조
- 3) 멘토 : 자원봉사자 대학생 50여명

7. 프로그램 세부내역

영역 차시	주제	목적	내용	시간 (H)	기대효과	비고
개인 캠프	오리엔테이션 및 면담	프로그램 소개 나의 요구 탐색	프로그램 참여 방법 안내 개별 학생이 원하는 것 찾기	2	참여 동기 강화 개인의 욕구 이해	개별
	개인 상담	자신의 심리 이해	개인 고민 상담	1		개별
	진로 탐색	자신의 미래 탐색	진로 탐색 자기소개 자료 만들기(프로필)	2	미래의 자기 상	개별
집단 캠프	자기소개 개회식	자기소개를 통한 개방과 친밀감 형성	개인적 특성을 통한 별칭으로 자기소개 자신이 좋아하는 매체(웹툰, 드라마, 게임, 영화)를 통한 자기소개 게임으로 자기 소개하기(손가락 접기 게임)	3	자신의 특성 이해	전체
		만남의 경험	집단원을 만난 소감 나누기 참여 약속 정하기			
		보물 찾기	시화호에서 다양한 보물찾기 나의 보물은?	1	시화호 생물의 다양한 가치를 통한 자신의 잠재력을 나눔	모둠
		시화호의 역사	시화호 역사의 이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봄	2	시화호의 역사를 통한 자기 삶의 이해와 가능성	전체 (특강)
	생명 키우기	내 친구 000	콩나물 키우기, 마리모 키우기, 강남콩 키우기, 사슴벌레 애벌레 등을 선택해서 키우기 ·선택의 이유?	1	생명을 키우는 경험을 통해 생명의 가치 이해	모둠 -> 전체
	나눔	현자의 말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	2	게임을 통한 디지털 사회의 미래 예측	모둠 -> 전체
		다시 만나도 내 아들, 딸	부모와 자녀의 소중함 경험	2	자신의 소중함을 통한 자신의 학업 및 가능성에 대한 재탐색	모둠
		자신의 가치	부모와 새로운 관계 인식	1	자신의 가치로움 인식	전체 (특강)
		다 함께 노래	또래 및 타인과 관계 맺음을 통한 즐거움과 협력 모색	2	함께 하는 경험을 통해 의외의 결과를 낼 수 있음을 경험	모둠 -> 전체
		나비 효과	이어 그리기를 통해 함께 하는 경험을 함			
		길을 찾다 초청 특강	자신의 흥미 가치 탐색	1	미리 살아보는 삶에서 진로 찾기	전체 (특강)
	개방	디지털 광고 대상 "시화호의 미래 인재"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냄을 통한 자기 수용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는 경험을 통한 타인과의 관계 능력 향상	2 1	자신의 진로를 종합적으로 개방	모둠 -> 전체
		미래인재란	미래 인재의 조건에 대한 이해	1	미래 인재로서 자신의 강점을 찾음	전체 (특강)
		미래 희망 선포식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선언하기	1	자신의 모습의 수용과 개방	전체
		경험 나누기	캠프 동안 자신의 경험을 탐색	1	자신의 진로 탐색 경험 개방	전체
				26		

#별첨1. 강사진 명단

구분	성 명	최종학력	소지자격	상담(강의) 경력
1	구*진	박사수료	미술심리상담사2급	미술치료, 청소년집단상담
2	권*진	박사졸업	가족복지전문가2급 미술심리상담사1급	상담, 부모교육
3	김*순	석사졸업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사2급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집단상담
4	김*희	석사졸업	청소년교육강사 독서논술지도사2급	청소년 집단 상담
5	남*아	박사졸업	전문상담사1급 청소년상담사2급	기관 운영 및 상담 부모, 교사 교육
6	노*아	석사졸업	청소년지도사2급 심리상담사2급	청소년 집단상담
7	문*우	석사졸업	사회복지사2급 전문상담사2급	청소년 개인상담, 집단상담
8	문*식	석사과정	심리상담사1급 미술심리상담사1급	청소년 집단상담
9	박*진	석사졸업	청소년 상담사3급	청소년 상담
10	김*숙	박사 과정	독서논술지도사2급 심리상담사 2급	개인상담, 집단상담
11	서*미	석사졸업	사회복지사2급 미술치료사	청소년집단상담
12	이*미	석사졸업	심리상담사 2급 사회복지사2급	청소년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13	엄*하	석사졸업	심리상담사1급 미술심리상담사1급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14	오*복	박사수료	전문상담사1급 청소년상담사3급	청소년 상담, 부모교육
15	윤*미	박사수료	전문상담사1급 정교사2급	청소년 개인상담, 집단상담
16	윤*경	석사졸업	청소년상담사2급 전문상담사 2급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집단상담
17	배*련	석사과정	사회복지사 2급 심리상담사 2급	청소년집단상담
18	이*미	석사졸업	전문상담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청소년 개인상담, 집단상담
19	이*정	박사과정	청소년생활지도사 임상미술상담사 2급 정교사2급	미술치료, 청소년집단상담
20	권*미	박사 과정	독서논술지도사2급 심리상담사 2급	개인상담, 집단상담
21	황*연	석사졸업	사회복지사 2급 상담심리지도사1급 청소년상담사2급(예정)	청소년 개인상담, 집단상담

별첨 #2. 캠프 보도자료

국민일보

2020년 11월 05일
16면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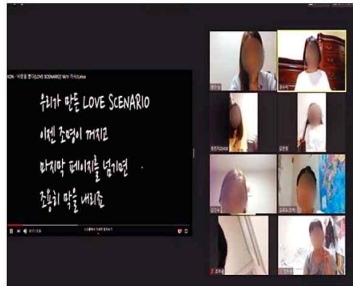
“위기 청소년, 비대면 캠프가 소통에 더 효율적”

수자원공사 '온라인 캠프' 주목

코로나로 고통 겪는 중·고생 5명
개별 상담·가족 대화·집단 토의
“상대가 내말에 집중 자신감 커져”
언택트 시대 교육, 새 가능성 제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청소년 생활 지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위기 청소년이나 다문화 학생 등의 경우 또래 접촉 결핍, 내적 스트레스 증가, 관심부재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주류 상당 수준의 학교 및 학업 부적응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 청소년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 및 통합 캠프 프로그램이 주목을 끌고 있다.

4일 경기도 안산·시흥·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8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20 사회화 꿈나눔 온라인캠프'를 열었다. 이 온라인캠프에는 또래관계나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고2 학생 5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학생들 온라인 합창

'2020 사회화 꿈나눔 온라인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다 함께 노래'라는 주제의 캠프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학생들은 노래 한 곡을 정해 개별 연습을 한 후 줌(ZOOM)에 모여 합창했다.

로저스심리상담센터 제공

해 학생들과 강사진은 줌(ZOOM)을 통해서도 교류했다.

학생들은 강사와 1대 1 개인 상담과 진로 상담을 한 후 생명과 나눔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섰다. 집에서 스스로 공부·강남공·사습벌레 등을 키웠고 학교는 왜 가야 되는지, 공부하는 왜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강사의 조언도 들었다. 학생들은 부모님이 보낸 동영상 시청하며 자신의 소중함과 가족의 따뜻함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진로와 관련해선 '길을 찾다' 초청 특강 등이 이뤄졌다. 특히

집단 토의에선 갈등 상황에서 서로 다른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개방하는 방법을 배웠다.

실제 캠프에 참여한 중1 전모양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목표가 없었다. 하지만 캠프 후반부터 자신감이 생겨 점차 미소를 띠고 즐겁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관심분야가 전문학과 해부학임을 확인했고, 이 분야에 대해 더 열정을 갖고 공부하기로 했다. 전양은 "동영상을 통해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기쁘고 감동적이었다"며 "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고2인 김모양도 "캠프를 통해 잘되지 않아도 다시 시도해보는 것, 그리고 사립을 이해해보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며 "은 제대로 해내고 싶은 사람인 걸 알게 됐다"고 기뻐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만남이 인간적인 느낌이나 개인의 생각을 공유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캠프에서 학생들은 상대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상대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로저스심리상담센터와 함께 캠프 운영을 맡았던 차명호 평택대 교수는 "온라인으로 무슨 캠프를 하겠느냐는 편견이 있었지만 온라인 캠프가 오히려 타인을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언택트 시대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차 교수는 "경기도 다른 지역,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연계되는 캠프를 만들어 많은 학생들이 성숙한 21세기형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덧붙였다.

모교 기자 hirt@kmb.co.kr

(25.1*17.3)cm

국민일보 2020년 12월 25일 금요일

사람들

15

‘줌’ 통해 건너온 사랑... 보육원 아이들 “나를 알게 됐어요”

(원격수업 애플리케이션)

국민일보-수자원공사 '사회주니어 리더십캠프' 큰 호응

생태학습 대신 코로나 심리상담
“집단생활 아이들 온라인 잘 적응
상담 거듭되며 적극적으로 변화”

“엄마(보육교사)는 이곳에서 〇〇을 만난 게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 엄마가 처음 이곳 가족이 됐을 때 묵묵히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퇴소를 앞뒀지만 언제든 나는 네 고민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 사랑해!”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22일 경기도 안성 신생보육원 아이들의 노트북에서 영상편지가 연이어 흘러나왔다.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 줌(ZOOM)을 통해 본 동영상에서는 ‘엄마’라고 불리는 보육교사들이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 12명 모두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보육교사들의 영상편지를 본 아이들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눈물이 나올까 자신의 얼굴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를 끈

뒤 ‘감동’이라고 인사하는 아이도 있었고, 먼저 눈물을 그친 아이들 일부는 계속 눈물짓는 아이에게 “재 운대요”라며 짓웃은 장난도 쳤다.

국민일보가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회화꿈나눔사업 ‘사회주니어 리더십 캠프’는 지난해 시작됐는데 당초에는 사회화 일대에서 환경생태 학습을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코로나 블루’를 겪을 수 있는 보육원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전환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차명호 평택대 교수는 “캠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생명’ ‘나눔’ ‘공유’라는 가치를 온라인에서 구현하고자 했다”며 “보육원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온라인에서는 생각을 더 편하게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보육원 관계자도 “아이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며 “교육을 받으면서 유튜브나 방송에 출연하는 것같이 생각



경기도 안성 신생보육원 학생들이 지난 22일 국민일보와 수자원공사가 공동 진행하는 사회화꿈나눔사업 ‘사회주니어 리더십 캠프’ 화상수업에 참여해 손을 흔들고 있다. 상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1주일에 한 번씩 화상수업을 통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다고 전했다. 안성·최현규 기자

한다”고 말했다.

개인 면담을 거쳐 네 번째 리더십 캠프 집단상담을 받은 아이들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교육 초반에는 모두가 카메라를 끈 상태로 익명으로 토론을 하

기도 했다. 이후 매주 하나둘씩 카메라를 켜면서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가게 됐다. 차 교수는 “온라인에서는 성별이나 몸집의 차이가 드러날 이유가 없어 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

능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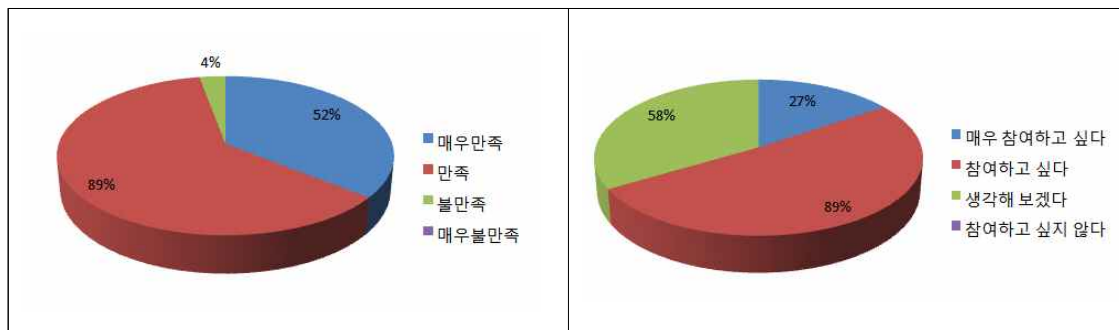
남자 로저스상담센터 소장은 “개별 상담 때는 가장 소극적이었던 아이가 사회에 나온 멘토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늦게까지 줌 대화방에 남아 오랫동안 생각을 말했다”면서 “아이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고백할 때는 원격수업에서도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매만져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캠프는 다음 주 스스로가 어떤 인재를 꿈꾸는지를 말하는 ‘평고 동영상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수업 도중에는 보육원 아이들의 멘토를 자처하고 있는 모델 김서라씨가 깜짝 등장했다. 줌 대화방에 등장한 김씨는 “코로나19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경이 펼쳐져 당황스러울 수 있었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끊임없이 고민하라”고 조언했다. 마스크 제조업체 에이스바이오테드 성탄절을 앞두고 마스크 3000장을 기부했다. 안성·황윤태 기자 truly@kmb.co.kr

별첨 #3. 2020년 온라인캠프 만족도 조사

1. 캠프기간 : 2020년 8월 24일 ~ 12월 31일(1~6차 진행)
2. 참여인원 : 52명(총 58명중 6명 중도탈락)
 - 학년 분포도 : 초등학교 10명, 중학생 24명, 고등학교 18명
3. 캠프 만족도 조사
 - 1) 참여 만족도

내용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캠프 만족도	52%	89%	4%	-
내용	매우 참여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생각해보겠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재참여 의사	27%	89%	58%	-



[캠프 전체 만족도 결과]

2) 캠프를 통한 학교 및 개인 생활 만족도

내용	매우 도움		도움		도움 안됨		매우 도움 안됨	
도움받은 정도	54%		85%		4%		-	
도움받은 영역 (복수선택)	서로에 대한 이해	진로에 대한 생각	새로운 친구의 사귄	나의 가치로움 발견	새로운 체험	또래관계 두려움 해소	마음이 편해짐	학교생활 기대감
	20	18	8	25	22	8	18	4



[도움 정도 및 영역]

4. 캠프 결과

1) 온라인 캠프의 효과성

참여자들은 청소년 시기라는 혼란의 시기에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음. 캠프를 통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음.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감소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가지게 됨. 또래와 만남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알고 이해하게 됨으로써 서로가 존중되어야 하는 하나의 소중한 생명임을 깨닫고 자신을 개방하고 나눔으로써 더 확장된 자신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됨.

- ① 효과적인 인성교육 및 진로 탐색의 통합적 접근
- ② 인간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간적인 만남의 장이 됨.
- ③ 내면 성찰의 기회 제공
- ④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한 프로그램 제공
- ⑤ 생명의 소중함을 통한 자존감 향상
- ⑥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움과 현실 세계의 확장
- ⑦ 이질적 집단(중·고등 남녀 학생) 구성을 통한 상호 문제해결의 촉진
- ⑧ 진로에 대한 확장

2) 학생들의 교우관계, 진로 및 학교생활, 생활지도(자기 이해) 효과

구분	생명	개방	공유
또래 관계	나와 친구의 존재가 모두 귀한 생명임이고 존중받아야 함을 이해	자신을 드러냄으로 친구들과 소통하고 친밀감을 갖게 됨	서로를 이해하고 다양한 생명의 가치를 나눔
진로 및 학교 생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탐색과 미래의 직업 특징과 의미에 대한 탐색 시도	다가올 미래에 자신의 가능성과 강점을 탐색하고 개방함으로 진로에 대해 구체적 구상	자신이 만들어 갈 미래 사회에서 자신과 타인들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고 나눔
생활지도 (자기 이해)	학교생활과 관련된 자신과 타인에 대한 현실적인 면에 대한 탐색과 이해	학교생활 및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소통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됨